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학업지연행동 매개효과 검증

김수현*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e-mail : kflic5084@hanmail.net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f College Students on Dropout Intention :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Soo-Hyun kim*

*Dept. of Beauty and Health, VISION College of Jeonju

요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 학업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학업지연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 간의 관계에 학업지연행동이 매개효과가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J대학교 218명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중도탈락의도, 학업지연행동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업스트레스, 중도탈락의도, 학업지연행동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학업지연행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Baron과 Kenny의 절차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 학업지연행동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지연행동은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지연행동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대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서론

대학에서는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 유지율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및 이미지를 관리하는 주요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박한샘, 2017). 고등교육기관의 2019년 학업 중단율은 6.9%로 전학년도와 동일하나, 학업중단자 수는 3,20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의 학업중단율은 전학년도와 동일하나, 전문대학은 전학년도 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은 개인, 대학,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중도탈락을 선택한 개인에게는 중도탈락 이후 타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함[2]과 동시에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와 더불어 더 높은 최종학력을 소지하게 될 기회를 잃게 된다[3]. 대학의 관점에서는 대학 제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어렵게 하여 대학이 교육정

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주게 되므로[4], 결국 교육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5].

중도탈락은 어느 하나의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중도탈락 관련 연구들은 개인변인, 대학변인, 사회변인 등으로 구분하여 구조적이고 복합적으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성을 규명하고 있다[1, 6~9]. 중도탈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을 제시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2,9],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수와의 상호작용, 학과 및 대학생활적응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통해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내적요인인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행동 변인을 중심으로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학업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 지연행동이 매개변수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지원체계를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 간의 관계에 학업지연행동이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J대학교 남, 여 대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약 1주일간 총 250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한 32부를 제외한 228부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에서는 남자 64명(29.4%), 여자 154명(70.6%)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 137명(62.8%), 사회계열 81(37.2%)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itken(1982)의 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를 박재우(1998)가 번안하고, 백경희[10]가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타당화 되었으며, 만성적인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는 대학생들을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과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과제를 완성하는 것을 미루는 경향성을 기술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점(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그렇다)까지 5점 Likert 식 척도를 사용한다. 이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지연행동의 경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지연행동 척도의 Cronbach's α 는 .75로 나타났다.

중도탈락의도 척도는 김지영[11]이 개발한 도구를 이유리[12]가 개정한 척도를 본 연구대상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생의도, 부모의도, 학교의도의 3개 하위 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식 5점 척도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중도탈락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중도탈락의도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전경구·김교현·이준석[13]이 개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가지 영역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문제(7문항) 영역만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사건의 경험빈도와 사건의 중요도를 각각 리커트식 4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학업스트레스 점수는 경험빈도×중요도로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학업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학업스트레스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지연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학업스트레스가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지연행동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인의 효과는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계수를 살펴보는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학업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후,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학업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중도탈락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학업스트레스, 매개변인인 학업지연행동을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중도탈락의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유의한 베타계수가 매개변수인 도입되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되면 매개변인인 학업지연행동이 완전 매개 변인이 된다. 또는 베타계수가 감소하지만 여전히 유의한 경우에는 부분 매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매개효과를 분석 후 매개효과가 나타날 경우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학업스트레스, 중도탈락의도, 학업지연행동 상관관계

본 연구의 분석에 설정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rson 적률상관계수에 의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academic stress, dropout intention, academic procrastination correlation

	academic stress	dropout intention	academic procrastination
dropout intention	.393**		
academic procrastination	.214**	.01*	

*p<.05, **p<.01

Table 1의 상관 행렬표는 학업스트레스, 중도탈락의도, 학업지연행동 변인들 간에는 전반적으로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93, p<.01). 또한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지연행동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14, p<.01). 마지막으로 학업지연행동과 중도탈락의도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1, p<.05).

3.2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dropout intention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β	t	F	R ²
	B	Standard error				
academic stress	.089	.014	.393	6.28***	39.44***	.15

***p<.001

Table 2에서 보면 학업스트레스 변수 β값은 .393(p<.001)로 중도탈락의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15%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결과는 F값이 39.4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3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academic procrastination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β	t	F	R ²
	B	Standard error				
academic stress	.023	.007	.214	3.22***	10.38**	.05

p<.01, *p<.001

Table 3에서 보면 사회적지지 변수 β값은 .214(p<.001)로 학업지연행동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5%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결과는 F값이 10.38(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4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업지연행동 매개효과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조건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지연행동을 매개로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인으로 학업스트레스, 매개변인으로 학업지연행동, 종속변인으로 중도탈락의도로 두고,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학업지연행동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Fig. 1과 같다.

Table 4. Mediated Effect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on the Impact of academic stress on dropout intention

step	Variable			β	t	F	R ²
1	①	→	②	.21	3.22***	10.38**	.046
2	①	→	③	.39	6.28***	39.44***	.154
3	① ②	→	③	.31 .08	6.4*** 1.2**	20.49***	.160

① academic stress ② academic procrastination ③ dropout int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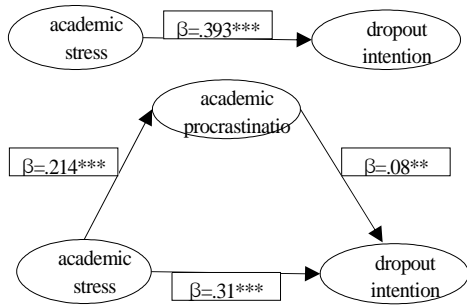


Fig. 1 Mediated Effect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on the Impact of academic stress on dropout intention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지연행동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학업스트레스, 중도탈락의도,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지연행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중도탈락의도,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스트레스는 중도탈락의도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지연행동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학업지연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생들에게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지원체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학습전략이 포함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2020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2020. 8. 28

박한샘, 2017, “지방대학 신입생의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C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5), pp.423-442.

김용남, 2009, “대학생의 학업중단 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명희·이은경·이용택, 2018, “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의 변화 추이와 영향 요인”, 『청소년문화포럼』, 58, pp.6-30.

이훈병, 2016, “대학에서 학습부진 학습자 진단을 위한 주요인 분석”, 『인문사회 21』, 7(3), pp.653-672.

소병한·김재웅, 2015,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전문대학 중도탈락 원인 분석 : 대학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3(3), pp.405-426.

김성식, 2008,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 대학선택요인과 대학생활 만족도의 영향”, 『한국교육』, 35(1), pp.227-249.

김지현, 2013, “사이버대학생의 중도탈락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교육연구』, 7(2), pp.1-16.

연보라·장희원, 2015, “대학생의 중도탈락 시기 및 영향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5(1), pp.129-155.

남민우·이해듬·백은주, 2016, “지방대학 신입생들의 학업중단 영향요인간 구조적 관계 분석”,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5(4), pp.147-174.

백경희, 2015.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 완벽주의와 성취목표지향성의 조절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영, 2008,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스트레스와 불안, 공격성 및 운동 중도탈락의도와와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리, 2011, “무용전공 대학생의 학업만족도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경우·김교현·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pp.316-335.